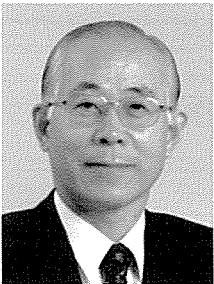




## 나눔으로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이세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최**근 최고경영자의 주요 역량으로 리더십이나 추진력 외에도 신체적 건강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만큼 일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에 휴일도 있는 채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옛날이야기가 돼버렸다. 건강하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일 잘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도 병약한 지식인보다 행복하다'는 말이 있는가 보다.

그렇다면 한 사회나 국가의 행복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건강한 사회'가 바로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 외국 언론에서 각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베트남, 필리핀보다 낮은 40위라고 한다. 행복은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 건강하기에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사회 역시 객관적인 조건,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 실패와 실업으로 우리 이웃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 번 빈곤층으로 진입하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빈곤으로 인한 가정 해체, 갑작스러운 질병,



가장의 실직 등 일시적 빈곤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은 여전히 공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해 쉽게 빈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또한 빈곤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한 사회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빈곤층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민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고 계층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간다. 불평등한 소득 분배는 경제·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치안과 복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더 지출하게 되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장애가 된다.

이처럼 한 사회의 건강의 척도는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행복이며,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계층과 함께 하는 상생과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나눔의 근본정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공동체 사회를 이해하고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나눔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힘' 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을 잃은 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는 말처럼 한 사회가 건강성을 잃은 후에는 그 회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위해 먼저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실천' 인 것이다. 이웃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 하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

나눔의 근본정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공동체 사회를

이해하고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